



금년말 세계 컨테이너선복량 960만TEU로 늘어 BRS, 올해 컨테이너선 전년비 16.7% 증가예상

BRS-알파라이너(BRS-Alphaliner)사는 최근 추가 선박 인도분을 반영하여 올해 컨테이너선복량이 2005년대비 16.7%가 증가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매월 12만TEU의 선박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BRS-알파라이너사는 연초 올해 전체 선복량이 매월 11만TEU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3월초 이를 월 11만5,000TEU로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비해, 클락슨사는 올해 선복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발주량을 기준으로 올해 말 세계 컨테이너선복량은 960만TEU에 이를 전망이며, 2009년초에는 1,250만TEU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클락슨사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포스트 파나막스급 선박 8척이 발주되는 등 지난해 6월 이후 최대의 선박발주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2009년 인도분 발주는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며, 2010년 인도 예정인 신조발주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등 선복 공급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조 발주 러시는 계속되고 있다.

홍콩, 컨테이너화물의 안전규칙 개정작업에 착수 홍콩, 컨테이너화물의 안전규칙 개정작업에 착수

홍콩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화물 컨테이너의 안전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4월26일 입법위원회에 상정했다.

홍콩 경제개발 및 노동국 대변인은 최근 컨테이너관련 전문잡지인 CI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해운부와 같이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구조에 이상이 있는 컨테이너나 훼손된 컨테이너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컨테이너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홍콩 해운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경고만 내릴 수 있을 뿐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이 법률은

컨테이너 안에 들어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규칙의 적용 범위를 컨테이너의 제조 지역과 관계없이 컨테이너 승인과 검사절차 부문까지 확대하는 한편, 컨테이너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사전에 인증을 받은 심사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컨테이너에서 안전 승인 표지판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컨테이너 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내릴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이 법률은 해운국장에 대해 컨테이너의 검사 승인절차와 관련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관보나 신문 등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아울러 부여하고 있다.